

석달째 '경고음'...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 확대와 함께 항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짙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경고 수위를 높인 뒤 석 달 연속 '경고음을 지속해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부진한 도장을 보여 항후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이 제약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고용과 대

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원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항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북 6월호에서 물가 처음으로 경기둔화 우려 표현을 쓰고 7월에도 이를 유지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미국·중국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

기재부, 8월 '최근 경제동향' 경기 진단

물가 6.3%↑...채소류 가격 25.9% 급등

6월 소매판매 및 2분기 설비투자 감소

수출 9.2% 증가했지만 다소 둔화 흐름

"美·中 성장 부진, 향후 수출 영향 가능"

서비스업 0.3% 감소... 고용시장은 훈풍

로별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둔화 우려는 지표상으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오르며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체유류와 의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강세 속에 육류·장미월 영향으로 농축산물 오름폭이 7.1%로 커졌다. 농산물 물가 중에서도 채소류 가격은 25.9%나 급등했다. 특히 배추 72.7%, 오이 73.0%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 영향

으로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보다 물가가 15.7% 상승했다. 전기료(18.2%), 도시가스(18.3%), 지역 난방비(12.5%)가 모두 오르면서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7.9%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도 신선채소와 과실 가격이 뛰며 전년 동월 대비 13.0% 급등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6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

가 모두 쪼그리들면서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네 달 연속 감소세로 이는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이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 감소했다. 항후 설비투자와 관련해 기계수주 증기와 평균기동률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설비투자 조정인력 죽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출은 석유제품과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지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 수출 증가율과 비교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3% 일본에 대한 수출은 2% 감소했다.

이승호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은 2분기 연속 미아너스 성장을 보여 앞으로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출 쪽에 대한 향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가격 단가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면밀히 접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증합 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일정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증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은 6월에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등이 줄어들며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다만 고용시장 훈풍은 계속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 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9.1%)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추석 민생·호우 피해 복구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간 경제활성화 제고 및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구조 개혁과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조경수 생산 임가
걱정 줄어들 것" 기대

정읍산림조합, 조경수작목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전문교육
엔진룸·임업기계 A/S 행사

정읍 산림조합(조합장 정학수)은 지난 17일 조경수작목반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수 밀폐 녹지 삽목과 병해충 방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8일과 19일에는 엔진룸, 임업기계 2차 A/S 행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 회원 사업을 위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경수작목반(회장 권남훈)은 지난 1월 조직인을 결성하고 6월에는 청송 임업인연수원에서의 243일간의 교육과 이번 정읍산림조합의 신임경영지도 일환으로 실시하는 심화교육과 더불어 총회를 열었다.

이번 3차 교육은 산림조합 김영호 박사의 '조경수 밀폐 녹지 삽목 요령과 조경수 주요 병해충 발생과 방제요령'에 대해 2시간 교육후 정읍조경수작목회 총회가 진행돼 2023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회의로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영호 박사의 전문교육도 내용이 알찼고 정읍산림조합에서 조경수 유봉에 밤 빛고 나선다 하니 앞으로 조경수 생산 일가들의 시름과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는 말들을 하면서, "강학수 조합장이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공형 조경수 전시판매장(직거래센터)'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회원들이 단합해 함께 꿈을 이루자"며 의욕을 불태웠다.

또, 장학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회원사업들을 발굴해 시행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길대환 기자



의산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협성남유통센터에서 성남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팀마루' 특판행사를 진행했다.

의산 명품 농산물 '팀마루' 수도권 판로 확대

경기 성남 소비자 대상 농협 성남유통센터서 특판행사 진행

의산시가 지역 명품 농산물인 '팀마루'의 수도권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협성남유통센터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팀마루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으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번 특판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양파, 햇고구마, 배, 생강, 쌀, 멜론, 토마토 등 팀마루 인증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7개 품목 3.7톤의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전국각지에 공급 중이며 이커머스(쿠팡, 마켓컬리, 위메프 등), 팀마루 쇼핑몰(www.tgmaru.net) 등 비대면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산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소비자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일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수도권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팀마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산=이재춘기자



고창농협 고령조합원

노인보행기 29대 기증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지난 17일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2층 문화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 원로조합원을 위해 약 600만원 상당의 노인보행기 29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창농협은 고령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보행기를 기증하고 있으며 4년간 150여대의 보행기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고창읍 이장단 협의회 정영순 회장은 "고창농협에서 매년 관내 고령조합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부모금 모시듯 이동에 편리한 보행기를 지원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농협에 감사를 표했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농협사업에 공헌과 함께 해주신 원로조합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협 원로조합원들이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석 선물, 저렴한 가격에

농협 라이브리, 내달 16일까지 할인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 경제지주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리(www.nhlyvly.com)에서 추석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LYLY GIFT 12종 상품(맞춤형 선물세트 제외)에 대해 상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로 LYLY GIFT 전 상품에 대해 5% 할인쿠폰을 인당 최대 2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할인한도 각 1만원).

또한 행사상품은 30만원 이상 대량 주문 시에는 구매 금액대별 최대 25만 포인트(한도 5% 적립금)를 지급 한다.



/김재훈기자

남원 농기센터, 드론

농작업지원단 연시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19일 대산면 대산초등학교에서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사업 설명, 남원시 청년 4-H회 비전, 드론 활용 방제 기술 사례발표를 하고 인근 총발 방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년 4-H 회원들은 대산초 학생들을 위해 개학 전 코로나 방역 실내 소독 봉사를 진행했다.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방제단(가온 누리)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대행 봉사 방제단 구성을 통



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방제·파종·시비 등 선두 연구 기술 적용 및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됐고, 이번 연시회를 계기로 관내 드론 방제단으로 선두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기후

변화와 농촌 일손부족 등 여건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법은 꼭 필요한 기술이며, 앞으로도 농가에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